

전남 주택건설사업자 10곳중 7곳 법규위반

도, 177곳 대상 조사... 132곳 262건 적발

기술자 미보유 등 등록기준 미달 최대

지역 주택건설 경기 침체로 기술자 정해진 수 만큼 보유하지 않는 등 등록기준을 위반하는 업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등록업체 177곳을 대상으로 시·군, 관련협회와 합동점검 결과 74.6%

인 132곳에서 모두 262건의 위반사태를 적발했다. 이 지역 주택건설 사업자 10곳 중 7곳이 등록기준 등 법규를 위반한 셈이다.

또 지난해 행정처분 건수 32건에 비하면 8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위반 업체 중 사업자 등록기준에

미달한 곳이 83곳, 지난해 영업실적이나 올해 영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곳이 50곳, 대표자 상호변경 미이행 업체가 11곳 등이었다.

또 영업소재지에서 근무하지 않는 곳이 31곳, 지점 미등기 업체도 87곳에 달했다.

등록기준 미달은 기술자 미보유가 64곳, 자본금 미달 1곳, 기술자 일정 기간 미보유 18곳이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은 사무실 33㎡ 이상, 자본금 3억원(개인 6억

원) 이상, 건축(토목)기술자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상법상 지점을 등기하지 않고 운영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는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영업소재지 미 근무 등의 업체는 경고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주택건설 경기 침체로 업체 불황이 지속하면서 등록기준을 위반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면서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행

정조치를 통해 올바른 업계 운영 풍토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해 종합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펴 527곳 가운데 폐업과 컴퍼니 등 124곳을 부적격 업체로 적발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도내 42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25.2%인 107곳이 자본금 미달, 기술자 부족, 자료 미제출 등 부적격 업체로 조사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오늘부터 '하우스 푸어' 채무조정

시중은행, 상환기간 연장·이자부담 감소

은행들의 '하우스푸어' 구제책이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시중은행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고객들을 위한 사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확대안의 시행에 일제히 나선다.

대상은 최근 1년 동안 누적 연체월수가 30일 이상이거나, 신청일 현재 연속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채무자다.

그러나 담보 주택과 관련된 압류나 소송, 경매 등이 진행 중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신청한 채무자도 이용할 수 없다.

채무조정 대상으로 선정되면 상환기간이 대폭 연장된다. 최장 3년의 거치 기간을 포함해 최장 35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하우스푸어의 가장 큰 어려움은 현재 소득에 비해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으로, 상환기간을 늘리면 월별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채무조정이 시작될 때까지 정상 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에는 감면해 준다.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채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도 최대한 늦춘다.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를 유예해 준다. 이 기간에 채무자가 스스로 주택을 팔아 원리금을 갚으면 연체이자도 감면해 준다.

다중채무자의 신용 회복도 최대한 지원한다.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할 때 지금까지는 채권은행 3분의 2(채권액 기준) 이상이 동의해야 했다.

앞으로는 동의 기준이 2분의 1로 완화된다. 또 지금까지는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대출자만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5억원 이하(신용대출 5억원 이하, 담보대출 10억원 이하)까지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연합뉴스

주간 증시 포커스

美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감... 종목 선택 고민

미국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감이 신종국 주식, 채권, 외환시장의 세 가지 약세현상으로 이어지며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 경기부진과 일본증시 급락 등 주변국의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KOSPI는 심리적 지지선인 1900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무엇보다 외국인 자금 이탈이 지속하면서 국내 증시의 수급 기반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내 증시의 하방 경직성을 예상한다.

그것은 바로 하반기 글로벌 경기개선 가능성과 기업이익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선 경기 측면에서는 미국 경기회복의 지속성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구전략 시행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회복에 대한 신뢰감이 유지될 경우 신종국 경기개선의 하방 경직성을 지지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스마트 폰 탑재 통화 우려로 삼성전자 주가가 급락세를 시현했지만, 올해 이익추진에 대한 안정성

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다만 종목선택의 관점에서는 고민스러운 상황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국내 증시에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 및 스마트 폰 부품주에 대한 비관론이 확대되면서 KOSPI뿐만 아니라 KOSDAQ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다, 경기민감주에 대한 외국인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출회되면서 종목 선택의 폭이 상당히 좁아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엔 환율이 지난 4월 초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수출주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이번 주에는 급락 이후의 반등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수급적인 부담이 적고, 2/4분기 이익모멘텀이 양호해 변동성 장세에서 내성 강한 종목군에 대한 비중을 우선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자동차 및 부품, 통신, 미디어, 건설이

이에 해당되는 대표

적인 업종들이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수완지점 PB>



양파농가 농촌일손돕기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본부장 고태순)와 해군3함대사령부(사령관 박경일)임직원 및 장병 60여명은 지난 12일, 14일 해남 및 무안군 일대에서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하고, 지역내 어려운 농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노조 50명 미만 사업장

전임자 1명 들 수 있다

노조원 50명 미만인 사업장도 7월부터 노조 전임 근무자 1명을 들 수 있게 됐다. 노동계와 사용자측,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14일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한도제) 한도 구간을 이 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합원 규모가 100명 미만인 경우 타임오프 한도는 50명 미만은 1000시간(전임자 0.5명), 50~99명의 경우 2000시간(전임자 1명)이 적용됐다. 근면위는 타임오프 시행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도 구간 재협상을 벌이기로 한 당초 합의에 따라 조합원 100명 미만의 2개 구간을 100명 미만의 한계 구간으로 통합해 일괄적으로 2000시간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금감원 '민원불량' 23개 금융사 밀착관리

국민은행·농협은행·ING생명 등 포함

ING생명, 흥국화재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금융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이들 금융사에 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처(금소처) 직원을 배치, 고객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도록 지도하고 감시한다.

금감원은 민원 발생이 많고 개선도 잘되지 않는 민원발생평가 4~5등급 23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밀착 관리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은행, 농협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국민카드, 하나SK카드, 동양생명, 우리아비바생명, 현대라이프생명, KDB생명, 알리안츠생명, ING생

명, PCA생명, 약사다이렉트, 롯데손보, 에르고다음, AIG손보, 동양증권,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도 포함됐다.

금소처 직원들이 이들 회사의 민원 전담관리자(CRM)로 지정돼 소비자 보호체계, 민원 관리 프로세스, 민원 동향 등을 밀착 관리해 민원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민원 예방이나 감축 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해 비현실적이면 재작성을 요구하고 상시 감시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될 때는 현장 조사까지 할 예정이다. 유사한 유형의 민원이 반복되는 등 문제가 지속하면 민원감독관을 파견,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상주하면

서 밀착관리해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 우려 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 단계적 조치도 한다. 업체 스스로 민원을 개선할 의지가 없으면 감독 당국이 아예 직원을 금융사에 파견해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일일이 지도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발생평가 하위등급 금융사에 대한 밀착 관리로, 이들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저금리 끝나나”

시장금리 상승에 대출금리 들쭉

신진국의 출구전략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마저 들쭉거리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의 양적완화 조기 종료 가능성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출구전략 논의에 국내 채권금리가 이달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지난달 9일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2.62%로 사상 최저 수준이었으나, 이달 12일에는 3.08%까지 뛰어올랐다. 같은 기간에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연 2.55%에서 2.88%로 상승했다. 특히 대출금리가 국고채 금리

에 연동된 적격대출은 이미 금리가 상당폭 올라갔다.

우리의은행의 적격대출은 지난달 9일 연 3.8~3.9%에서 이달 14일 연 4.2~4.3%로 올랐다. 하나은행의 적격대출 금리도 한달 새 0.4%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외환은행의 적격대출 금리(10년 만기 비거치식)는 지난달 9일 3.72%에서 지금은 4.13%로 0.4%포인트 이상 올랐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남녀가발

23년간 약 1만명 시술경력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가격공인가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M.H.타사 브랜드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시험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가는

2중단열 방수 천정 결로방지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C 겨울철 실내온도 3~5°C

전기료 30~40% 난방비 15~20%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전속모델 탤런트 이영후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